"고용·투자 막는 규제, 단두대서 한번에 처리"

朴 대통령 한달만에 국무회의 주재
단기간에 대규모로 하향식 개선
신설부처 전문성 중심 인사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한 달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향식의 강력한 대규모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기요틴은 기존 건별 또는 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단기간에 대규모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이 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 부처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에는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인사 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FTA 비준을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KDI '디플레 대비 기준금리 빠른 추가 인하 필요'

1990년대 日과 유사해 대응 서둘러야
"국책연구기관이 한은 압박" 논란일듯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이 제기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공방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밑도는 1%대에 머문 데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한 종합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최근의 한국 경제를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과 비교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초기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소극적 정책대응에 머물러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

일본 통화 및 정책 당국은 디플레이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와 물가 안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 인식이 분명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용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면 명목금리 인하의 부양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 목표 준수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정책 대응 수단도 제한되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디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사실상 중앙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한 것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10월 국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2년 4개월여 만에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국책연구기관의 추가 금리인하 주문까지 대내외 변수가 잇따르면서 기준금리 인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내년 디스플레이 수출 3년만에 늘 듯

산업연구원, 경제산업 전망
이차전지·반도체장비 등 약진

내년 디스플레이 수출이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등 후발 수출산업의 약진도 기대된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가전 4대 정보기술(IT)제조업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기계산업(자동차·조선 등)과 소재산업(철강·석유화학 등)을 더한 12대 주력산업 수출은 3.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T제조업 중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수출 감소세를 접고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은 6.5%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급이 회복 사이클로 진입하는 한편 패널가격 안정화, TV용 패널사이즈 확대, UHD 및 OLED 수요 증가가 긍정적 요인이다.

반도체는 PC와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도 서버 시장 확대와 웨어러블기기·SSD·자동차 등 신규 응용 분야 수요 확대에 힘입어 6.1%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조선(7.0%)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9.5%로 예상되는 올해 수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기 역시 내년 3.1%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증가율은 올해(6.0%)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점쳐졌다.

내년엔 기존 12대 주력산업 외에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의료용전자기기 등 후발 7대 수출산업의 호조도 기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정 총리, 모로코 총리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당부 모로코를 방문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각) 현지에서 압델리란 벤키란 모로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정 총리는 통상·건설·플랜트 등 전통 분야 협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수자원·환경·ICT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압델리라 벤키란 모로코 총리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작년 국내기업 매출 제자리 수익성 2008년 이후 최저치

통계청 '2013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고 수익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에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매출액은 2257조원으로 2012년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기업 매출은 지난 2010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10년 16.3%에 달했던 매출 증가율은 2012년 6.0%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대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이익률도 부진한 모습이다.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9.2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난 2008년(32.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1000원당 순이익은 특허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63.0원이었으나 2008년 30원대로 추락했다. 이후 2010년 60원대를 회복했지만 2011년 51.7원, 2012년 47.2원에 이어 지난해 30원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세계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했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 46만개 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1만22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기업 종사자 수는 총 422만명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기업체 5998개사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총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개성공단 원산지 논의 정례화

한미 FTA 이행기구 회의

한국과 미국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차원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관련 내용을 다루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브루스 허쉬 무역대표부 대표보 등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고위급 회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를 동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측은 FTA 협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제반 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ISD 논의도 이뤄졌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일등제품
최고의 기술
Best Price

정보유출방지 nTracker 보안 USB

보안USB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엔트랙커 USB 프로

안전성 국정원 CC 인증 최다 판매, 최고 평가
SMB 적합 100명 이하 사용 서버 불필요
보안정책 외부사용 금지 읽기 전용
최신매체 제어 휴대폰(스마트 폰) Wibro, 블루투스
효율성 작은 Agent(2M) 간편한 사용법
보안성 파일, 통신 암호화 ARIA, RSA2048
nTracker USB PRO

서버가 불필요한 보안 USB와 매체제어 솔루션

엔트랙커 USB 엔터프라이즈

압도적 상용 사이트
최고의 안정성 검증된 기술력
최적의 도입비용

■최신 장치 및 기술 지원 (윈도우 8, 갤럭시, 아이폰 등)
■판매 1등(최근 5년 조달청)
■품질 1등(최근 5년 조달청)
더 이상의 보안USB는 없습니다

엔트랙커 RSC

미인증 저장매체: 차단, 사용불가, 사용이력
Client PC
인증된 저장매체: 정상사용, 관리/통제, 사용이력
Server
Agent (nTracker-RSC)

■이동식 저장장치 제어(Removable Storage Control)
■USB, 외장HDD, CD-RW, 디카, MP3, Card reader, SD...
■윈도우XP/Vista/7(64bits)/8(64bits 포함) 지원
■ODD(read Only), 블루투스, 와이브로, 무선랜 등 제어
■최신정보기기 적용(아이폰, 갤럭시 등)
※윈도우 서버용 RSC – NT서버계열 매체제어 기능 지원 및 보안 USB 시스템과 연동

@TrackSystem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목동, 현대41타워) 801호 Tel. 02-6737-6699, 6091-0271~4 Fax. 02-6091-0275 (주)엔트랙시스템 www.nTracker.kr